



## 개정 소방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고층빌딩에 때아니게 방화체제비상이 걸렸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11층이상인 호텔 여관 음식점 등 유흥및 숙박업소와 병원 등이 각종 피난시설을 갖추고 청원소방원을 두는 등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 화재에 약하고, 특히 고층화재에는 속수무책이다 싶게 일방적으로 당해오고 있는 우리사회인만큼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인 것은 아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더이상 화재의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된 탓이다.

새로운 소방법시행령은 釜山大匪관 광호텔화재사건 후 전국 호텔 여관 병원 시장 등 많은 인명을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나온 긴급처방. 대형화재가 예상되는 3천 5백64개소의 건물에 대해 한달동안 정밀점검을 한 결과 방화구획의 미비와 가연성내장재, 피난계단과 비상구의 미비 등이 발견돼 대형사고를 예방하기위해 법을 고치게 되었다.

새 시행령에따라 앞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들은 종전에는 2층이상 10층이하에만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호텔과 병원의 경우 11층 이상에도 피난계단이 미비됐을 때는 수직구조대(자루처럼 된 탈출기구)를 설치해야하며 2~5층 객실에는 피난받줄, 6~10층 객실에는 간이 로프완강기를 설치해야한다. 또 종전에는 11층이상 부분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11층이상 건물일 경

우 모든 층에 갖추어야 한다.

특히 불이 났을때 급격히 연소를 확대하고 유독가스를 뿜어 화재피해를 대형화하는 내장재는 모두 방염재로 대체해야 한다.

호텔 극장의 벽지 커튼 카피트등 내장재는 물론 매트리스 시트커버 등 침구류까지 모두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도록 규정했는데 다만 업주들의 일시적 부담을 고려, 시설기간은 내년말까지 여유를 주었다.

내무부에 의하면 지난 3월의 정밀점검결과 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밝혀진 건물은 전국에서 9백89개소, 내무부는 그동안 이들 업체에 시설보완을 강력히 지시, 20일 현재 90%이상인 시설을 개선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내무부는 새로운 시행령에서 정한 피난설비와 함께 대형건물에서는 방재센터도 운영토록 권장, 곧 설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방재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의 힐튼호텔로 전문관리인이 각 객실과 복도중요시설에 연결된 화재경보시스템을 관찰하고 폐쇄회로 TV까지 가동, 이상유무를 24시간 점검하며 순식간에 각 객실과 시설물에 경보를 내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 호텔 6층이상 완강기 의무화

2~5층에는 피난받줄

차관회의는 소방법시행령을 고쳐 호텔의 2층에서 5층까지의 객실에는 피난받줄을, 6층이상 10층까지는 간이완강기를 의무적으로 비치도록 했다.

11층이상은 별도의 피난계단이 없을경우 수직구조대를 갖추도록 했다. 또 11층이상의 호텔 여관건물에는 각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시설하고 호텔의 시트커버, 매트리스 등의 침구류를 비롯 고층건물의 커튼 카피트등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토록 규정했다. 이 시행령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침구류 커튼 등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바꾸는 일은 연말까지 여유를 두었다.

## 都市計劃 8개案 공람

서울시는 江南구 道谷동 172일대와 驛三동 65일대에 벌이는 道谷토지구 획정리사업 등 8개 도시계획안을 마련, 일반에게 공람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들 도시계획안의 공람기간중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확정할 계획이다.

△道谷토지구획정리사업= 이 지구는 이미 개발이 끝난 永東지구와 개발중인 開浦지구사이의 미개발지로 지난 2월 토지구획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고 이번엔 부근 불량주택지와 공원용지 1백 8만평방m를 해제해 모두 27만 2천평방m에 구획정리사업을 펼 계획이다.

30억원을 들여 86년까지 공사를 끝내고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감보율 등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얻어 결정, 기존건물은 가능한 한 보존키로 했다.

△新門路도시계획용도변경= 도심개발구역인 鍾路구 新門로 1가187의 1일대 5만 1천 8백여평방m 가운데 2만 6천 6백여평방m는 상업지역으로, 2만 5천 1백여평방m는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 이지역은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용도를 변경, 전문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

△舍堂어린이공원면적축소=舍堂동 산32의 52일대 1만 5천 8백평방m의 공원용지 가운데 1만 4천 3백평방m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공원용지로 남게된 1천 5백평방m를 제외한 지역에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新林근린공원확장=冠岳구 新林동 산 195의 2 성보중교교부근 학교용지 12만 8백 17평방m를 공원용지로 지정, 부근에 기존공원에 추가해 신림근린공원의 면적이 3만 3천 9백 90평방m에서 15만 4천 8백 7평방m로 늘어난다.

△果川면 下리주택지=始興군 果川면 下리 370의 1일대 4만 7천 4백 80평방m의 임야를 주택지로 조성, 서울대공원입구 官門광장철거주민들을 집단 이주시킨다.

△金浦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재 사업시행중인 총면적 4백70만6천3백34평방m중 22만3천7백64평방m가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대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시계획을 변경, 金浦지구 402구획 등 공원계획지역 14개소와 金浦지구 202구획~402구획및 3구획 주변의 도시계획을 폐지했다.

또 江西구 木동 3구역 1만4천91평방m의 땅에 근린공원이 새로 세워진다.

△鍾岩洞~貞陵洞도로= 당초 서라벌 중고교 북쪽 담장을 따라 폭25m 길이 1천m의 4차선 도로를 내려던 것을 변경, 기존도로 북쪽의 貞陵川을 북개해 길을 내고 인근 유흥가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촉진한다.

△逸院洞~水西洞간도로= 開浦지구의 계획도로가 변경됨에 따라 이와 접촉지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폭25m 길이 1천8백70m의 도로계획선을 변경했다.

## 을지로 2가 16·17지구

### 재개발 착공

을지로 2가 16·17지구 재개발사업이 착공됐다.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주택공사(사장 朴英秀)에 의해 재개발되는 을지로 2가 재개발사업은 사업면적 2만7천9백95m<sup>2</sup>(8천4백45평)에 약2천3백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87년 9월까지 지하4층에 지상 20·27·29층의 현대식 건물3개동과 기타 부대시설이 건립된다.

인쇄소가 밀집 인쇄골목으로 불리던 을지로 2가 일대의 재개발사업은 88올림픽에 대비, 도시정비를 위해 공공기관이 개입한 첫번째 재개발사업이다.

재개발사업이 끝나면 을지로 2가 일대는 ▲도로율이 현재의 5.9%에서 21.3%로 3.5배나 확장되고 ▲건물면적도 현재의 1만1천88평에서 7만6백여평으로 6.4배나 증가하게 되며 ▲2천2백70평의 녹지공간이 새로 확보됨은 물론 ▲1천3백80대를 수용하는 주차시설도 갖추어진다.

주공은 이지역에 당초 34층 규모의

대규모호텔과 오피스빌딩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 층수를 30층 밑으로 낮추고 건물용도도 일반 오피스 및 금융기관·판매시설로 바꾸었다.

## 建築에도 海砂문제 검토

### 日 建設省, 대응책에 고심

콘크리트構造物의 鹽害가 海砂使用與否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日 建設省은 土木構造物實態調査着手에 이어 건축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建設省住宅局서는 建築技術審査委에 콘크리트 품질문제小委를 발족시켰으며 日本建築센터에도 연구회를 설치하고 2년간 목표로 海砂와 알카리骨材問題對策마련에 着手했다.

그런데 지난 4월말에 발족된 콘크리트品質問題小委서는 ①實態把握과 分析 ②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대책 ③既存建築物에의 對策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케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海砂의 鹽分 含有量 基準再檢討問題와 海鹽粒子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鹽害對策을 如何히 할 것인가에 重點이 두어질 것이라 한다.

## 日「建築設備士」제도 곧 창설

전기·공조·방재·인테리어 등 망라

日 建設省은 電氣工事, 空調工事, 防災工事, 인테리어 등 建築設備의 技術水準이 向上되고, 또한 總工事費에 차지하는 比重도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새로 「建築設備士」(假稱)를 創設할 方針임을 明白히 했다.

앞으로 具體的인 資格이나 權限등을 檢討해서 올해안으로도 첫 試驗을 實施케 될 것으로 豫想되고 있다.

이같은 建設省의 움직임은 住宅内部生活의 便利性이나 安全性 등에 대한 消費者들의 要望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며 現行制度上으로는 建築士에 設備, 內裝에 관한 專門的知識이 거의 不充分해 그 未備點을 補完케 함으로써 보다 質 좋은 住宅建設을 普及하자는데 目的이 있다.

다만 建築士(1級, 2級) 등과 달리

伸縮性있는 資格으로 할 것을 構想하고 있다.

日政府의 이같은 建築設備士(假稱)創設構想은 木造建築士와 함께 지난해 1월 建築審議會建築士制度改善에 관한 答申에 反映되어 5월에 法改正을 보는 등 法的 뒷바침은 이미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木造建築士制度는 6월에 1次 資格試驗을 實施하는 등 具體的인 方向이 設定된데 反해 建築設備士는 範圍나 技術水準의 把握 등에 時間이 所要돼 늦어졌는데 오는 가을에는 長官告示로 年內에 試驗이 施行될 可能性이 짙어졌다.

住宅設備, 內裝에 관한 技術의 發展은 눈부셔 最近에는 日렉트로닉스를 使用한 住居保安, 大型建築物의 防災, 空調 등 建築設備의 比重이 總工事費의 50%가까이 까지 投入되는 事例가 늘어나고 있다.

日建設省은 이같은 點을 勘案, 專門資格制를 創設해서 設備工事의 責任體制를 明確化, 專門化할 計劃이다.

## 건축평론상 수상작 공모

꾸밈誌서, 지령50호 기념사업

지령 50호를 맞이하는 꾸밈誌(주식회사 토달디자인)에서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제 1회 꾸밈 건축평론상 수상작을 공모하고 있다.

건축평론 풍토를 조성하여 우리나라 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건축평론 주제는 작가론 및 작품론으로서 1부는 대학원생과 기성건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2부는 대학재학생만이 참여 하도록 되어 있다.

마감은 오는 8월16일 오후6시까지이며 종로구 동승동 1-141 꾸밈 편집실로 원고를 제출하면 된다.

그의 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당선작 1점(상패 및 부상50만원)

가 작 1점(상패 및 부상20만원)

2부/ 당선작 1점(상패 및 부상20만원)

가 작 1점(상패 및 부상20만원)